

월요광장

자유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같은 생각과 습관, 같은 방식과 모습으로 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라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드물다.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했던 많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라고 한다. 하지만 아는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주하는 삶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식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깊어진다. 차고 나면 새로운 일들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산더미처럼 생겨나고 배우는 방법도 달라지니 아무리 열심히

히 노력해도 여전히 따라잡을 수 없기 마련이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주눅 드는 마음도 더 커진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과는 달리 무지의 자각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남는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더 많은 것을 아는 일에 집착하지만 부끄러움은 더 커진다. 이러한 앓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앓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지식과 인식이다. 사전에서 인식은 “깨달아서 어떤 것을 알다” 또는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지식은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인식은 지식을 꼭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과정과 행위이다. 반면에 지식은 알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인식은 주제적인 반성과 통찰하는 능력이고, 지식은 사물에 대한 단편적이고 사실적이며 학습된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지면서 인식의 가치보다는 지식의 가치가 더 커졌다. 사실 영국의 경험론자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베이컨은 편견의 ‘우상’을 섬기던 당시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인식 방법을 주장한 것이다. 머리만으로는 개념만으로 사유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에서 참된 지식이 얻어진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뜻에서 베이컨이 말하는 참된 지식

과 인식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측정하며 계산하는 시대에서 인식과 지식은 완전히 계 분리되었다. 왜냐하면 지식이 힘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진리’ 앞에서 지식의 힘은 절대화되었다. 지식을 축광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시험이 난무하고, 각양각색의 ‘지식 공장’이 난립한다. 어느 누가 학교와 직장에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찍히고’ 삶을 것인가? 시련에 실패한 사람은 부끄러운 ‘죄인’이 되어서 주변의 온갖 동정과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지식은 힘을 생산하고 힘은 지식을 다시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인식한다면, 지식의 가치를 되돌음 수밖에 없다. 지식이 삶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면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어제보다 더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주제적인 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존감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인식이다. 인식은 날개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사태의 본질을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인식의 가치는 숫자로 계산될 수 없는 내면의 힘이며,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삶이 있는 곳에서 지식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며, 지식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지식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지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억압적이고 왜곡된 과잉의 지식이 갖는 함정과 강요된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긍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긍정의 인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라고 말한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다. 니체는 자기긍정의 삶이 곧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유의 징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타인의 지시와 요구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최고의 사람은 가장 ‘나 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많은 지식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타인의 삶을 살고, 타인을 흉내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나의 방식과 말에 유혹되어 나를 따르고 추종하라 하는가? 오직 너 자신만을 충실히 추종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한결음에 실현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자기긍정의 삶은 긴 과정 속에서 뜨거운 용기와 의지의 값으로만 이뤄진다. 또한 이는 자기 배려의 삶이 곧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인의 삶이다.

社說

김종인의 비례대표 ‘셀프공천’ 노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추천에서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탈락했다. 더민주가 4·13 총선에 나설 광주·전남 후보자 선출을 위해 진행한 경선에 참여한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광주에서 박해자 의원(서구갑), 전남에서 이운석(영암·무안·신안), 김광진 의원(순천시) 등 3명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신문식 의원이 참여한 지역구(고흥·보성·장흥·강진)는 공천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4·13 총선에 나설 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덕성과 정체성 등에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2차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가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로부터 낙천 대상으로 공표된 인물도 있다.

게다가 야당으로서의 ‘메시지나 철학’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야당이 항상 당선 가능성에 배치했던 장애인이나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비례대표 2

번에 이름을 올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다. 김 대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전략공천 몫으로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를 비례대표 1번에, 자신을 2번에, 최운열 교수를 6번에 각각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스스로 남성 후보의 최상위 순번인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한 것이다. ‘셀프 전략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4번이나 비례대표를 지낸 바 있는 김 대표는 비례대표로 5선을 하는 전기특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가히 세계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당을 살리겠다고 들어와 전권을 장악한 김 대표가 비례대표 안정권민 순번을 배정 받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아무래도 노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문제이지만 하지만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의 비례대표 안정권민 배치는 그동안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오지 않는 정도 지지율 반등을 가져왔던 호남 지역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결과적으로 더민주에도 결코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광주~김포 항공편 폐지 이후 대안 찾아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두 편이었던 대한항공 광주~김포 국내선이 27일부터 모두 끊기 때문이다. 해당 노선은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승객이 다수였는데 항공사 측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 1단계 개통 이후 고속철로 이용객이 몰려 탑승객이 많이 줄어들자 급기야 운항 중단을 결정했던 것이다.

항공편 폐지를 앞두고 광주시 등은 현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하루 왕복 2회 운항 중인 광주~인천 고속철(KTX) 편수를 2배 늘려 4회씩으로 증편하는 안을 대안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공행행 선로가 포화 상태인 데다 객차 확보도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한항공의 광주~김포 노선

탑승률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져 계속 운항할 경우 연간 적자폭이 4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는 운항 폐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에게는 항공편이 인천공항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공공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대비책 없는 폐지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노선 취항으로 상당한 이윤을 축적했던 만큼 8월께 수서발 KTX 개통으로 공항길이 조금 더 수월해질 때까지라도 더 기다려 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KTX 광명역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늘리는 등 적극 대처함이 마땅하다.

법조칼럼

아이를 위한다면



박 현 수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울며 방을 돌아다녔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그런 증상은 없어졌다.

아이가 12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이 말을 안 들으면 ‘도깨비 방’이라는 겁쟁이 이야기로 겁주곤 했었다. 너무 무서웠다고. 이 말을 듣고서 큰아이가 어린 시절 왜 그런 증상을 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주의력도 높지 못하고 대·소근육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실수를 많이 한다. 하나하나가

리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교육’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과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새로 발령받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 재판을 했다. 엄마는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해서는 안 될 말로 어린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고, 구타도 서슴지 않아 머릿속에 피가 고여 있었다. 아이는 그래도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엄마는 전에도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기에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명백했다. 아이를 숨겨서 일제거간 말기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사건을 심리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엄마도 어린 시절 친정엄마로부터 그런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자신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와 같이 학대를 한 것이었다. 안타깝았다.

아동학대는 이런 점에서 무섭다. 행위자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화풀이를 해놓고 다 나 잘 되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이런 상황은 이혼사건에서도 발생한다.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 보통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한다. 그런데 면접교섭 협의를 하면서 양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가 헤어진 엄마야 아빠를 만나고 오면 더 말을 안 듣거나 우울해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일 것이다. 헤어진 엄마, 아빠를 보고 오면 그 아픔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눌러놓거나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아이가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의 이혼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성장의 한 과정이다. 아이가 곁을 떠날 때 자주 넘어진다. 그렇다고 아이가 넘어져 다칠까봐 아예 곁을 떠날 때 자주 넘어진다. 그렇다고 아이가 넘어져 다칠까봐 아예 곁을 떠날 때 자주 넘어진다.

을 것이다. 이혼한 배우자를 대면하기가 싫은 마음에 ‘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올바르게 자라나야 할 아이에게 또 다른 의미의 학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광주가정법원에는 지난 1월20일 청사 내에 면접교섭센터인 ‘동심’을 개소했다. 이혼 전·후의 부모와 자녀에게 부모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을 지원한다.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이혼재판과 관련해 재판장의 사전처분 등에 의해 진행된다.

광주교육대 미술교육학과 정희남 교수의 재능기부로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솔직히 우리 집보다 더 마음에 든다. 게다가 상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접교섭지원센터로부터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조만간 일요일에도 즉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작은 썩에 불과하지만 면접교섭센터 ‘동심’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꾸어본다.

기고

광주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



신 명 근  
광주시노동센터장

현재 지역이슈로 자리잡은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물론 세계경제 침체에

광주시가 먼저 나서서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박수를 받을만하다.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산업공동화, 수출부진, 내수침체, 높은 실업률 등 어느 것하나 장밋빛 희망을 볼 수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으며, 신조어로 등장한 ‘헬조선’은 미래의 주춧돌인 청년들을 버림받았다고 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신산업구조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악화일

로를 걷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여건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자본유출이 심화될 개연성이 있으며, 수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수위주 산업개편은 수출지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치명적 위기를 안겨다 줄 수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혜롭게 바라보며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해결책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개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에 있다고 본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미래의 주요 이슈가 환경문제임을 예견하고 지역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접목시켜 전기자동차 산업유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광주시가 중심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온 것이다. 또한 생산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구조의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다. 부품사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노동자 처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공장설립과 운

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어려운 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마디로 기존 패러다임을 확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의 일주제인 노동자는 소비의 주요 요충이기도 하다. 생산물이 소비되지 않으면 경제의 혈류가 막히는 것처럼 노동자가 풍족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전기차 기업은 운영하는데 참여를 보장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임금과 복리후생이 전제된다면 노동자도 주인인식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리라 본다.

또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수많은 부품사가 필수요건임을 감안하여 완성차와 부품사간의 값을 관계가 아닌 존중하고 공존하는 관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부품사 노동자들도 완성차 노동자와 같은 처우를 누려야 한다. 전기차와 부품은 기술 집약적 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이다. 유럽과 일본처럼 가내공업적 기업이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전기차 부품산업을 이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광주시 일관되게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출자기관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책을 펼쳤다. 지역의 주요 화두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 된다면 적어도 우리지역의 고용과 기업운영관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지역이 성공하면 한국경제에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때일수록 사고의 전환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적인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데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및 노사와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노동센터는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되어 우리지역 노동자간의 양극화해소와 노동조건 개선이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無等鼓 (Mudonggu) - 제노비스 증후군 (Jeunobis Syndrome) article with title and sub-header.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City)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